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IN 신학정론

vol.10 no.1 (March, 1992): 115-142

조,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교리를 가르키는 것이 아닌가가 근본 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신조가 사도들이 가르친 신약성경 신학에서 동일시하고 있는가 혹은 반대하고 있는가가 근본문제이다. 신약 신학 전체가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이라면, 칼빈이 이해한 신조의 뜻이 “사도적”(apostolic)인 것을 누가 부인 할 것인가? 여기 관계된 사도신조가 신약신학에 동일하는 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신조가 “사도적”이며, 따라서 이 신조를 거절 할 근거가 없다. 다만 우리는 이 특별한 신앙고백 신조를 신약 신학 전면에 조회하여 문제가 되면 검토할 일이다. 칼빈의 해석이 합당하며, 그러한 의미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신앙고백을 지금까지 공포하고 있으며, 이 신조를 초창기 로마교회 신조에 루피누스(Rufinus)가 증거한 “사도신조”를 현실교회가 보장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韓國 改革主義 神學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신 복 윤

<교수 · 조직신학>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은 정확히 말해서 유럽의 칼빈主義와 英美의 淸教徒 思想이 웨스트민스터 標準文書에 구현된 신학, 즉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이라 하겠다. 이 신학은 청교도적인 영미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전래되어,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 되었다. 朴亨龍박사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영미 장로교회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에 전래되고 성장한 과정이다.”¹⁾ 하나님의 主權과 聖經의 權威를 출발점으로 하고, 칼빈主義 5대강령으로 전개된 개혁주의, 그리고 영국의 많은 교인들에 의하여 이 개혁주의 사상이 경건과 정열로 받아들여지고, 여기에 독특한 신학적 특징들이 가미되어 이루어진 청교도주의, 이러한 두 요소가 한국장로교 신학의 전통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을 청교도적 개혁주의라

이 글은 1991년 11월 12일 제 3차 정암신학강좌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1) 박형룡,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신학자남 제 4권 3집, 1976년 가을. p.11)

규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한 신학적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있는 신학,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면서 하는 신학이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인 것이다.

I. 幼兒期的 改革主義 神學(1885-1935)

1885년 美北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Horace G. Underwood)의 한국 선교 이래 1938년까지의 한국교회는 매우 강한 개혁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신앙과 신학을 심어준 초대 선교사들의 덕분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청교도적인 신앙인이었으며, 안식일을 지키고, 춤이나 흡연이나 카드놀이를 죄악시했다. 재림론에 있어서는 前千年期說의 입장을 견지하고, 高等批評과 자유주의 신학은 위협한 이단으로 단정했다.²⁾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초대 선교사들은 뉴잉글랜드에서 온 몇몇 감리교 선교사들을 제외하면, 그 신학적 지도력이 매우 강하게 보수적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이 舊 프린스턴신학교나 맥코믹 신학교에서 교육받았다는 것으로 보아도 그들의 사상적인 경향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³⁾ 1890년에 한국에 도착한 마포삼열(Samuel A. Moffett)박사도 1909년 선교사들의 신학적 경향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선교회와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2) A. J.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Scribners, 1919, p. 540 ; Harvie M. Conn. 한국장로교신학사상. p. 2)

3) 미국장로교 한국선교부가 펴낸 연례 보고서(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Annual Report, 1922, p. 17)는 당시 한국에서 사역하던 40명의 선교사들은 7개 신학교 출신들인데, Princeton 출신이 16명, McCormick 출신이 11명, San Anselmo 출신이 4명, New York Union 출신이 3명이고, 그리고 약 10개의 성경신학교 출신들도 있었는데 Moody 성경학교 출신이 으뜸이고, 그 다음이 뉴욕의 Biblical Seminary 출신이라고 보고하였다.

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철저한 믿음과 열정적인 복음주의 정신을 특징으로 지녔다.”⁴⁾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하비 콘(Harvie Conn) 교수는, 일본이나 인도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은 이 땅에 처음 찾아온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보수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면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수 십년간 美 북장로교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보수주의자라는 말을 듣는다고 역설하였다.⁵⁾

이렇게 초창기의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소유했던 선교사들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았다. 선교사들은 초기 한국교회의 거의 유일한 신학적 안내자였던 것이다. 1927년에야 처음으로 한국인 교수(南宮赫)가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임용된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⁶⁾ 유동식 교수는 초기 한국교회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짓는다. “환난 속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대중에 뿌리박은 한국교회는 율법주의적인 보수신앙으로 굳어가고 있었다.”⁷⁾ 그러나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아마 그는 그러한 평가를 내린 줄로 안다.

혹시 그들의 영향력이 1930년대 말 그들의 한국 철수로 중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나, 그들이 세운 신학적 전통은 그 후에도 한국장로교회 안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확고히 보수하면서 그 해석에

4) Harriet Pollard, “The History of the Missionary Enterprise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in Korea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Personnel” 1972년 Northwestern 대학교 석사논문, p. 26 ; Conn, *op. cit.*, p. 2)

5) “解放後의 韓國長老會 保守神學”(신학지남, 제 42권 3집, 1975년 가을호), pp. 47-48.

6) 남궁혁 박사(1882-1950)는 미국 프린스턴과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1925년에 돌아온 장로교 최초의 신학자요, 장로교 신학교의 첫 한국인 교수이다.

7) 韓國神學의 鑛脈, 1982, p. 43.

필요한 보완을 행할 것 뿐이다.”라고 역설한 朴亨龍박사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서도 개혁주의의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⁸⁾

이처럼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보수적인 교육기관에서 받은 훈련은 한국교회에서 여러 면으로 그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메시지에 있어서나 방법론에 있어서나, 초대 선교사들은 복음주의적이며 보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한국교회에 심어주었던 것이다.

1890년에 채택된 네비우스(Nevius)방법도 보수주의 신학 보급의 한 좋은 예증이 되었다. 이 방법의 중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대로, 自活이나 自治制가 아니라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全 生活의 기초로 삼는데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선교방법이 聖經 中心的인 성격과 보수신학을 연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팍안전(Charles A. Clark)선교사는, 성경이 초기 선교 방법론에서 중심을 차지하였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에서는 성경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 주장하였다.¹⁰⁾ 초기 선교사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믿고 가르쳤던 것처럼 성경을 믿고 가르쳤으며, 또한 이 사상을 한국교회에 굳게 심어 주었다. 한국선교의 이러한 성경중심적 성격은 바로 보수주의 신학과 직결되었다.

1907년에 처음으로 조직된, 한국장로교 獨老會가 1904년 인도의 장로교회를 위하여 영국의 장로교회가 작성하고 채택케 한 12信條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채택했는데, 이것으로 한국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적으로 확립하였다. “이 신앙고백은 철저한 칼빈주의적 경향을 지닌 1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고 백낙준 박사는 기록하였다.¹¹⁾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

8) 박형룡, *op. cit.*, p. 19.

9) Allen D. Clark,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1961, p. 87 ff

10)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pp. 121 f.

11) 韓國改新敎史, 1832-1910,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p. 376.

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만 밝혔을 뿐 교회의 告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¹²⁾ 그 후 1963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이를 헌법의 한 부분으로 정식 채택하고, 1969년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과 총회가 이를 헌법의 한 부분으로 정식 채택하고, 1969년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과 총회가 교회의 공고백으로 채택하였으며, 1981년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개혁과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및 예배모범을 우리의 교의와 규례의 표준으로 삼는다.”고 선언하였다.¹³⁾

초기의 선교사들이 어찌하여 1907년의 독노회로 하여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을 보류하고 12신조와 소요리문답만을 채택하게 하였는가? 김영재박사는 다음과 같이 답을 내린다. “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들의 본국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게 하지 않고 12신조를 채택하게 한 것은 선교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배려에서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살던 시대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신앙고백이었다.”¹⁴⁾

사실 이 신앙고백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사용되어오고 있으나, 그 시대의 특수한 형편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후일에 수정이 되어 보충이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 장로교회는 1788년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다루는 23장과 31장을 수정하여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선명하게 밝혔다. 1903년에도 미국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다시금 수정하여, 생활에 관한 3개조항을 수정하고, 聖靈과 宣敎에 관한 조항을 첨가하고, 예정에 관한 4

12) 헌법 및 규칙(대한예수교 총회본부 발행, 1959), p. 7.

13) 헌법(대한예수교 장로회(개혁)총회 발행), 1986. p. 10.

14)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서울 : 성광문화사), p. 209.

단적인 입장을 수정하기도 하였다(제3장).

백낙준 박사의 평가대로, 12신조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훌륭한 신앙고백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교회가 직면하는 여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침을 주는 신앙의 척도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다. ……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교의 기본진리에 관한 신앙고백은 가졌으나 실제 생활과의 관련에서 말하는 신앙고백은 없이 지내 왔다. 한국교회에 기독교 윤리부재를 흔히 말하는 것을 듣는데, 윤리에 대한 신앙고백, 즉 윤리에 대한 신앙적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1901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平壤神學校는 12신조에서 강조된 개혁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시켰다. 평양신학교는 한국 장로교회의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지요 本山이었다. 평양신학교가 1920년에 채택한 다음과 같은 설립목적에서도 우리는 그 교리적 기초를 개혁주의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된다. “본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요, 모든 행위의 근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진심으로 믿으며, 바로 이해하고, 중심으로 사랑하며, 명확히 해석하며, 따라서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또는 순수하게 전하기에 힘쓰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목적에서 우리는 평양신학교가 성경중심적인 교육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장로교의 한국 선교 50주년 기념 보고서”에서 논평한 邦惠法(Herbert E. Blair)선교사의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성경만이 강조되었으며, 연구된 교과서이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표준과 장로교 정치형태를 채용한 장로교인들은 역사적 칼빈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구 프린스턴처럼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없이 확실하게 받아들였다.”¹⁶⁾

15) 김영재, *op. cit.*, p. 211.

16)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p.121; 박형룡, *op. cit.*, p. 19.

평양신학교는 1936년까지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도 1890년 한국에 온 마포삼열 박사(Samuel A. Moffett, 1864-1939, 설립자), 1902년에 온 관안련 박사(Allen D. Clark, 1878-1961, 설교학, 교리학), 그리고 1892년에 온 이율서 박사(William D. Reynolds, 1905년 사망, 조직신학) 등 세 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들은 모두가 엄격한 개혁주의자였다. 관안련 박사는 한국선교 사역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된 이유 중의 하나로 보수주의를 들면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한국선교에서 위대한 성과를 거두도록 허락하신 비결”이라고 단정했다.¹⁷⁾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교육은 엄격한 개혁주의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한국교회의 초기의 보수주의의 특징은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 이상이었다.¹⁸⁾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의 독특성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918년에는 神學指南이 평양신학교의 기관지로 창간되어 개혁주의 신학의 대변자가 되었고, 1929년에는 메이첸(J. G. Machen)박사의 “信仰이란 무엇인가?” (What is faith?)라는 책이 함일톤(Floyd Hamilton)선교사에 의해 번역되었고, 비록 1954년까지는 활자화되지는 못했으나, 한국 최초의 개혁주의적 “조직신학”이 1937년 具禮仁(John Cuntis Crane)선교사에 의해 저술되었다.¹⁹⁾ 1937년에는 뵈트너 박사(Lorane Boettner)의 “豫定論”(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이 박형룡 박사에 의해 번역되었다. 이상의 여러 출판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초기 한국교회의 성격이 과연 개혁주의적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는 초기의 한국 장로교회에서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의

17)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p.56.

18) Conn, *op. cit.*, p. 28.

19) 이 책은 두 권으로 되어있는데, 상권은 1954년, 하권은 1955년에 각각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교교육부에 의해 발행되었다. 이 책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몇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한 확신이다.

초기의 한국 장로교회는 죄인의 回心을 성령의 주권적 有效的 召命으로 보는 청교도적 전도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연합, 부흥, 전도보다는 각종 查經會에 중점을 두었다. 청교도형의 전도 방법은 죄인의 회심을 하나님이 은혜롭고 주권적인 역사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회심이란 말을 쓰지 않고, 유효적 소명이란 말을 써서,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성령을 통한 결정적인 소명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신앙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0장)과 소요리문답(31문)에서 回心이란 말 대신에 유효적 소명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그 좋은 예가 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는 두 가지 형의 전도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위에서 말한 청교도형이요, 다른 하나는 近代型이다. 근대형은 특별 집회를 열고, 불신자를 초청하여 설교한 후 決信을 촉구한다. 기립하거나, 거수하거나, 혹은 강단 앞에 나와서 결신을 표시하게 한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능히 회개하고, 신앙할 수 있다는 신념의 표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승복할 것을 권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성경을 正確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믿고,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그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이해와 확신은 우리 마음에서 말씀으로, 또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內的 證據에 의해서 된다.”²⁰⁾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신학교와 성취학교, 각종 사경회와 主日 오전 공부 예배를 통하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였다. 馬布三悅 선교사는 “한국에서의 전도사업의 주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자주 공석에서 말했다.

2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2. 5조.

셋째는, 聖守主日과 敬虔生活에 힘쓴 일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며, 기도와 예배에 힘썼다. 平北宣川에서는 場날과 주일이 겹치게 되면 자연 철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신자들이 주일에는 매매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를 개방한 이후 처음 25년간의 전형적 선교사는 퓨리탄형의 선교사였다. 이 퓨리탄형의 선교사는 안식일을 지키되, 우리 뉴잉글랜드의 조상들이 한 세기 전에 지킨 것처럼 지켰다.”²¹⁾ 선교사들은 성수주일의 신앙을 한국교회에 심어 주었던 것이다. 한국교회는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교회이다. 청교도들은 안식일을 창조의 질서로 보고, 여기에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였다.

16세기 후반에 청교도가 영국에서 세력을 얻음에 따라 그들은 일요일을 “기독교 안식일”로 부르고, 10계명 중의 제 4계명을 여기에 적용하여, 日曜日을 휴식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룩하고 복 주신 날로 엄격히 지켜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안식일은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후부터는 일주일간의 첫날로 바뀌어져,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 불리워졌는데, 이 날은 기독교 안식일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²²⁾ 그리고 초기의 한국 장로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매일 보았고, 통성 기도와 철야 기도를 자주 드렸다. 이것은 한국 장로교회의 첫 목사(1907년 안수)가 된 吉善宙 목사(1869-1935)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안다. “그의 전도 운동은 한국의 부흥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신앙의 몇가지 특성을 형성하는데 공헌하였다. 그 하나는 새벽기도회 운동이다. 그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고, 묵시록을 암송하는 것으로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했다. 부흥회때면 반드시 교인들로 하여금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교회 운동의

21) Brown, *op. cit.*,

22) 27장 7조.

한 특성을 이루게 했다.”²³⁾ 따라서 한국 장로교회는 헌금에 기쁨을 느끼고, 오락과 술, 담배를 금지하고, 모든 방면에서 단정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썼다.

넷째로, 열심히 전도하는 일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학교, 도시와 농촌에서 말과 글로 전했고, 행위와 사업으로 또한 열심히 전했다. 뿐만 아니라 복음전도의 열성은 모든 한국교회 신자들에게도 널리 퍼져서 신자 각자가 개인전도에 열중하였다. 한국교회는 신자마다 전도인이었기 때문에, 教勢는 속히 늘어났으며, 목사와 전도사가 없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폐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회의 성장은 놀랍도록 커서, 선교 10년이 지난 1895에는 신자의 수가 겨우 1,590명이던 것이 1910년에는 226,791명(장로교 176,356명, 감리교 50,435명)으로 늘었고, 1930년에는 무려 37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²⁴⁾ 평양신학교의 설립목적도 “성경에서 계시된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또는 단순하게 열심히 傳播하기를 노력하는 복음의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두었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은 항상 그 황금 시대만을 누릴 수는 없었다. 초기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강한 칼빈주의적인 교회였으나, 한편 역사적 장로교사상과 불일치 혹은 미흡한 요소들이 서서히, 혹은 어떤 점에서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世代主義, 根本主義, 神秘主義, 그리고 敬虔主義的 요소들이 벌써 초기 한국교회에 깊이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초기 한국교회는 매우 강한 개혁주의적인 교회였으나 한편 취약점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23) 유동식, *op. cit.*, pp. 57-58.

24) 유동식, *op. cit.*, p. 39, 63.

II. 自由主義 神學의 挑戰(1935-1945)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수적인 한국교회에도 자유주의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서울 남대문교회의 金英珠 목사에 의해 모세 5경의 著作權이 부인되고, 함경도 성진 중앙교회의 金春培 목사에 의해 성경의 女權에 대한 교리가 부인되었다. 김춘배 목사는 자유주의 논설들의 온상이 되고 있던 “基督新報”에 “여자는 조용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은 2천년전의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이요,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두 사건에 대하여 1935년 제 24회 장로회 총회는 “모세의 창세기 저작권을 부인하는 목사는 정확무오한 성경을 모독한 자인고로 우리 교회의 교역자됨을 거절함이 가하다.”라고 결론 내렸고, 여권문제에 대하여는 “성경에는 여자의 교권이 전혀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상에 영합하기 위하여 성경을 현대사조에 맞도록 자유롭게 해석한 것은 그 정신 태도가 파괴적 성경비평의 정신 태도와 다름이 없다.”고 처리했다.

제 24회 장로회 총회는 또한 당시 감리교의 柳澄基 박사의 편집으로 번역 발행된 {아빙돈 單卷聖經註釋 (Abingdon Bible Commentary)을 모든 자유주의 사상의 집대성으로 단정 처리하였다. 이 단권성경주석 문제가 의제에 올랐을 때, 몇 사람의 선교사 이외에는 이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길선주 목사²⁵⁾는 그 집필자의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자임을 지

25) “그는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들보다 앞서는 대진도자요, 대부흥가요, 대성경학자였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와 성경강해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크게 환영되었고,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 사상은 한국교회의 그것들의 표준과 같이 되어 있다”(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 10년사, p. 176); “길선주는 실로 한국장로교회 보수주의 신학사상 형성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다”(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59).

적하고 장로교내의 침입을 용인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으며, 총회는 길전주 목사의 의견에 따라 “**新生社** 발행 성경주석에 대하여는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에 위배되는 점이 많으므로 장로교회로서는 구독치 않을 것이며, 동주석에 집필한 본 장로교 교역자에게는 소관 교회로 하여금 사실을 심사케 한 후 그들로 하여금 집필한 본 장로교 교역자에게는 소관 교회로 하여금 사실을 심사케 한 후 그들로 하여금 집필의 시말을 기관지를 통하여 표명케 할 것”²⁶⁾을 결정 선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인 蔡弼近 목사는 즉시 사과했으나, 宋昌根 목사는 신학의 자유를 억제하려는 총회의 독단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실로 한국교회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사상의 보수주의 신학사상에 대한 도전의 효시였다.”²⁷⁾ 당시 마포삼일 박사는 1934년 제 23회 총회에서 문제되었던 창세기 저작권 문제와 여권 문제, 그리고 1935년 신학지남 1월호에 시렸던 김재준 박사의 권두언 문제 등,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됨을 보고, 회년 기념 예배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한 바 있다. “근래에 와서 교회내에서도 종종 이런 말이 들린다. ‘교회를 좀 변경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복음을 전과 같이 전하면 듣는 자가 좋아하지 않는다. 새 시대에 옛 복음은 적당하지 않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저들의 지혜는 바울의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할만 하였으나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배운 지식이 풍부하고 훌륭한 철학자였으며, 권세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다. 그의 기록한 서신에 의하면, 그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힘썼다. 그렇게 한 지 50년 후에, 그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 어떤 신신학자들은 마포목사는 너무 보수적이라고 비난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옛

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24회 회록.

27) 金良善, 韓國 基督教 解放十年史, p. 177.

복음에는 구원이 있어도 새 복음에는 구원이 없는데야 어찌하라. 우리들이 바울이 전한 옛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는 교회가 매우 왕성하였다. 무엇 때문에 옛 복음에 새 복음을 대치 하겠는가? …… 나와 韓錫晉 목사가 13道에 두루 다니며 전파하던 그 복음, 吉善宙 목사가 평양에서 전하던 그 복음, 梁甸伯 목사가 선천에서 전하던 그 복음은 저들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聖靈의 감동을 받아 전한 것이었으니, 앞으로도 그것을 조금도 변경하지 말고 받은 그대로 전하라. 바울이 청년 목사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같이 나도 조선에 있는 원로선교사와 노인목사를 대표하여 조선 청년 교역자들에게 부탁한다. 원로선교사와 원로목사들의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²⁸⁾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의 중심 인물은 金在俊 교수였으며 일본이나 캐나다에서 교육 받고 돌아온 인사들이 여기에 가세하였다. 지금까지 교수해 오던 聖經無誤說이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리스도의 처녀탄생이나 대속교리, 그리스도의 육체부활이나 재림같은 교리에 대하여는 논란이 되지 않고 있었다.

1938년 9월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 27회 총회가 일제의 탄압에 못이겨 日本鬼神앞에 무릎을 꿇고 神社參拜을 결의함으로 한국교회 사상 씻을 수 없는 일대 오점을 남기게 된다. 하나님을 唯一神으로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던 한국의 이 개혁신학의 교회가 자신의 무력함을 스스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굳게 믿고 있던 이 성경적인 훌륭한 교회가 무참히도 일본의 한 민족신 앞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1930년대는 日本이 침략전쟁으로 광분하던 시대였다. 1931년에 滿州 事變을 일으켜 대륙으로 침공해 들어간 일본은 1937년에 다시 中日戰爭을 일으키고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으로 침략해 들어갔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敗亡을 自初했다.

28) 김양선, *op. cit.*, pp.190-191.

그들은 이 침략전쟁 수행 중에, 그들의 식민지 정책은 날로 악랄해져, 한국을 대륙침략의 兵站基地로 하였으며, 징병제를 만들어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민족말살 정책을 써서 민족의식을 없애버리고, 朝鮮語 교육을 폐지하고, 創氏改名을 하게 하고, 1940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하여 우리 문화를 완전히 봉쇄하고, 마침내는 기독교를 탄압할 계획을 세우고 일본신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학교 학생들에게만 강요했는데, 1937년부터는 교회 교인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신앙에 파탄이 오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1938년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의 강요를 당한 후, 고 주기철 목사 이하 적지 않게 많은 주의 충북들은 일어나, 일제의 강제에 정면으로 부딪쳐 싸우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0여 교회가 폐문되었고, 2천여 신도가 투옥되었으며, 50여명의 교직자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다." "1941년 미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제의 교회탄압은 더욱 심하여서 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은 투옥되었으며, 1942년에는 일제의 강요로 각 교파가 모두 그의 고유한 명칭을 버리고 소위 '교단'이라는 일본 교파명을 가지게 되었고…… 해방되는 해인 1945년 8월 1일에는 신교 각 교파를 소위 '日本 基督教 朝鮮教團'이란 명칭하에 통합시켜 명실공히 일본 기독교단에 예속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적 비신앙적 강요에 응치 않음직한 인물은 투옥하거나 강단에서 추방한 후 함구령, 또는 금족령을 내려 실제의 활동을 억제하고, 다만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순응하는 인물들만으로 교회의 지도에 행개하는 간악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교회를 폐합시키고, 예배시간의 제한, 근로동원등으로 예배를 전혀 불가능케 한때도 있었다. 그러므로 뜻있는 신도들은 많이 지하에 숨어 버렸으므로 일시 70만을 헤아리던 프로테스탄트의 신도의 수는 거의 그 반수로 줄어들었다."²⁹⁾

29) 김양선, *op. cit.*, pp. 43-44.

총회가 신사참배를하기로 결정하자, 평양신학교는 동년 2학기 개강을 무기 연기하였으며, 이것은 곧 자진 폐교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1939년 3월 27일에는 현한신대학의 전신인 朝鮮神學校가 新義州에서 모였던 제 28회 총회의 설립경영 인준을 받아 서울(승동교회)에 설립되어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를 놓게 되었으며, 이 학교는 그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되어 왔다.

김재준 교수는 이때 다음과 같은 신학교육의 이념을 발표하였다.³⁰⁾

1. 우리는 조선교회로 하여금 복음선포의 실력에 있어서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학적 사상적으로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게 할 것.
2.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신학교는 경건하면서도 자유로운 연찬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가장 복음적인 신앙에 도달하도록 지도할 것.
3. 교수는 학생의 사상을 억압하는 일이 없이 충분한 동정과 이해를 가지고, 신학의 諸 학설을 소개하고, 다시 그들의 자율적인 결론으로 칼빈 神學의 정당성을 재확인 함에 이르도록 할 것.
4. 성경연구에 있어서는 現批判學을 소개하되 그것은 성경 연구의 예비지식으로 이를 채택함이요, 신학 수립과는 별개의 것이어야 할 것.
5. 어디까지나 조선교회의 건설적인 실제면을 고려에 넣는 신학이어야 하며, 신앙과 덕에 활력을 주는 신학이어야 할 것. 신학을 위한 분쟁과 증오 모략과 교권 이용등은 조선교회의 파멸을 일으키는 악덕이므로 삼가 그런 논쟁을 피할 것.

김재준 교수의 이 교육이념은 평양신학교의 교육이념과 전통을 전적으로 개혁한 것이며, 그는 이때 벌써 보수주의 신학과 대결할 것을 결심하고 있었다. 조선신학교의 출현은, 한국인의 손으로 설립된 최초의 신학교라는 것과 선교사의 주도권과 보수주의 신

30) 김양선, *op. cit.*, pp. 193-194.

학사상에서 벗어난 신학교임을 의미하였다.

신사참배를 결정한 후부터 청교도적이며 개혁주의적이었던 한국장로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1940년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던 대부분의 보수주의 선교사들은 한국을 떠나고, 위에서도 말한대로, 한국인 보수주의자들이 상당수가 투옥되거나 망명의 길을 떠났다. 남아있는 지도자들 가운데는 강당을 설 수 없도록 함구령을 받은 분도 있었다. 이렇게 되고보니 보수주의 세력의 지배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교회의 주도권은 자유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Ⅲ. 解放을 맞은 韓國 長老教會와 改革主義

1945년 해방을 맞은 한국 보수진영의 교회는 대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진리투쟁에 나섰다. 물론 분쟁, 혼란, 분열 등 이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하여는 보수주의자들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수주의 대 자유주의의 투쟁이었다. 그것은 기독교를 이교사상과 종합해 보려는 운동과의 투쟁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은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있어 왔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1935년의 모세5경 저작권 문제와 아빙돈 단권 주석문제, 1952-53년에 있었던 조선신학교문제, 1959년의 WCC문제로 인한 투쟁도 역시 이 근본적인 투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한국장로교회는 이때마다 자신의 입장이 개혁주의임을 분명히 과시하였다. 1945년 해방직후 얼마동안 나라 안 전체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으며, 교회안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다. 동시에 교회안에는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첫 시도가 1946년 9월 20일 출옥 성직자인 한상도, 주남선 두 목사를 주축으로 하고, 박윤선 박사를 초대교장으로 하여, 현 고신대학의 전신인 고려신학교가 부산에 설립된 일이었다. 이 학

교는 그 후 “교회 내에 보수주의 사상을 심어줄 터전이 되었다.”³¹⁾ 이 신학교는 평양신학교의 옛 사상들을 그대로 계승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朴允善 박사가 초대교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이 목적의 달성은 더욱 용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설립자들이 출옥 성직자였던 만큼 “殉教者 精神”이 그 밑에 흐르고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교장에 취임한 박윤선 박사는 고려신학교에서 무엇보다도 칼빈주의 교육의 증진을 도모했으며, 오늘의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옛 전통의 올바른 계승의 필요성 못지않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그는 느끼고 있었다. 1946년 이후 고려신학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혁주의 固守運動에 전력을 다해 온 것을 우리는 감사히 생각하며, 또한 마음 든든히 생각하고 있다.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 改革과 再建의 둘째 시도는 1948년 6월, 서울 南山에 현 총신대학의 전신인 장로회 신학교의 설립이었다. 이 학교의 초대교장으로 박형룡 박사가 추대되었으며, 학생은 1947년 김재준 교수의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반대하고 일어난 51명의 조선신학교 학생 대부분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박형룡 박사는 1930년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부임한 이래 1978년 10월 25일 소천될 때까지, 48년동안 성경의 바른 진리에 대한 파수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위대한 신앙인이요, 인격자요, 신학자요, 또한 설교가였다. 장로회 신학교의 설립은 “前 평양신학교의 再生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동정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선교사들의 기쁨 또한 대단하였다. “동교의 재건으로 말미암아 보수주의 신학의 고수운동은 본격화되었으며, 이로써 자유주의 신학은 그 기성지반의 근본적인 동요를 보게 되었다”³²⁾고 김양선 교수는 말하였다.

장로신학교의 설립 다음 해인 1949년 4월 19일에는 서울에서 모인 제 35회 장로회 총회가 장로회 신학교의 총회직임을 결정

31) Conn., *op. cit.*, pp.136-137.

32) 김양선, *op. cit.*, p.245.

했는데, 이것은 “곧 보수주의 신학사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장로회 총회는 보수신학에 의하여 리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³³⁾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사상에 대한 확고한 意志를 우리는 이 총회의 결정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1952년 4월에는 제 37회 장로회 총회가 聖經 有誤說과 자유주의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김재준 교수를 제명처분함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사상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과시하였다.

문제의 발단은 1947년 봄 김재준 교수의 자유주의 신학사상을 우려한 조선신학교의 학생 51명이 동년 4월 18일 대구에서 열린 제 33회 장로회 총회에 김재준 교수의 강의 내용을 명시한 진정서를 제출한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진정서의 내용을 간단히 추려보면 김재준 교수의 성경관에 있어서, 신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文書說 주장, 성경은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것, 노아 洪水說話에 대한 역사성 부인, 바벨탑 기사의 역사성 부인, 그리고 여리고 城의 함락은 신경전에 의한 정신적 승리였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교리문제에 있어서는 정통주의는 위장된 人本主義요 正統的 異端이라고 주장한 점, 豫定論은 마침내 숙명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총회는 심사위원 8인을 선정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케 할 뿐만 아니라, 김재준 교수로 하여금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쓰도록 하였다. 김재준 교수는 이 답변서에서 聖經은 구속의 진리를 啓示함에 있어서는 無誤하나, 역사과학의 純지식부문에 있어서까지, 정확무오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정통적인 성경무오설을 부인하였다.

김재준 교수의 이 진술서에 대하여 박형룡 박사는 그의 성경관은 파괴적 고등비평의 성경관이고, 교리문제에 대한 변명은 新新

33) 김양선, *op. cit.*, pp. 245-246.

학의 교리관이라고 비판하였다. 박형룡 박사의 비판문을 참고로 여기 소개한다.³⁴⁾

1. 聖經觀

(1) 김 교수는 성경의 신학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하나,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고등비평을 승인한다. 곧 그는 성경의 著作者, 著作地, 著作時, 著作方法에 관한 전통적 所論이 비판적, 과학적, 역사적 探究考證으로 말미암아 변경되었으나, “성경이 神言되는 점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비평가들의 “文書說은 輕히 이를 물리칠 수 없으나, 이것을 시인한다고 해서 모세와 무관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고 말하고, “모세로부터 전승한 것을 後人들이 기록한 것임은, 마치 예수님의 정신을 터득한 사도들의 경우를 따라 편지한 것이 복음서와 동양으로 권위를 가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함이니, 이것은 모세가 五經의 저작자가 아니라는 설명인 동시에, 고등비평가의 소위 文書說의 변화이다. 그런데 고등비평을 수납하되, 성경의 신언으로서의 권위와 그 영감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참 말이 아니다.

모세가 오경의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오경의 저자로 말한 구약의 여러 책의 증거(수 8:31, 35; 왕상 2:3; 스 3:2, 6:18, 7:6; 느 8:1; 단 9:13)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증거(마 22:24; 막 7:10, 10:3, 5; 눅 2:28, 24:27, 44; 요 5:46-47)와 신약 다른 책들의 증거(롬 10:5, 19; 행 3:22)의 권위를 무시하고 욕하며, 따라서 선지자, 그리스도, 사도들의 교훈과 기록에 불신임을 선언하여 성경 전부의 권위를 의문케함이니, 이 어찌 성경의 권위에 대한 파괴를 행함이 아니라!

(2)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가르쳤다는 점에 대한 답변으로, 김

34) 김양선, *op. cit.*, pp. 229-231.

교수는 성경에 과연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경 절대 무오설을 주장하려면, 갈릴레오의 地動說을, 성경을 파괴하는 이단이라고 비판하던 수도승들의 頑迷를 재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하니, 김교수는 자기가 믿는 고등비평은 갈릴레오의 지동설만큼이나 확실하고, 고등비평에 반대하여 성경의 절대 무오설을 믿어 온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中世代 카톨릭 교회의 수도승 같이 완미하다 함이니, 김교수는 고등비평을 철저히 신임하나 우리 교회를 너무 능욕한다. 그는 성경에 “神話의인 것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오류는 결코 사소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외에 구약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후부터라야 정확하고, 그 이전은 확실성이 없다고 가르쳤다는 것, 여리고城의 함락은 한 신경전에 의한 정신적 승리라고 가르쳤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답변하지 않았으니, 그렇게 가르친 것이 사실인 때문일 것이요, 그런 것은 역시 고등비평의 교훈이다.

2. 敎理問題

(1) 「새 사람」誌 11월 호에 정통을 공격하며, 정통신학은 신신학보다도 더 교묘하게 위장한 실제적 인본주의요, 정통적 이단이라 운운한 것은 “소위 정통의 가면을 쓰고, 교회를 교란하는 실제적 이단자를 배격함”이라고 하니, 이는 신학자로서 정통신학자를 욕설하는 상투어이다. 신신학에 반대하는 사람이면 교회를 교란한다는 말로써 반박하는 것은 그들의 정통주의 횡난의 어법이다. 그것은 자기의 신신학에 동정하거나 찬성하는 사람이 眞正統이라는 말이니, 지금 자기를 횡난하는 자는 가면의 정통이라는 말이다.

(2) “신구약 성경은 교리의 교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신신학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교리를 찾아내는 것은 정통교회가 자고로 한 일이요, 대한 예수교 장로

회가 하여온 일이다. “문자적 정통에 집거하여 그것을 전통으로 알고, 바리새적인 교만과 완미로 교권을 끼고 중세기의 종교 재판관 노릇을 재연하는 자들을 나는 배격하는 바라.” 한 것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를 정통적 입장에서 지도하여 온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욕설이다.

(3) 예정론에 있어서 작년 3월(1947년) 3학년생의 조직신학 구원론 시간에, 김 교수는 자기는 예정론에 대하여 취미가 없다. 결국 칼빈의 예정론은 숙명론에 돌아간다고 하였다는 것에는 답이 없으니, 氏는 아무리 예정의 신앙의 감격을 강조하였다하더라도 칼빈의 예정론에는 반대한 것이 아닌가?

3. 神觀, 宗教觀

신관, 종교관에 있어서 학생들의 호소문에 김 교수의 교훈으로 인정한 여러가지 조건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말았으나, 그 여러가지도 역시 성경비평가, 종교진화론자들의 하는 소리임에 틀림이 없다. 이상 김 교수의 답변 내용을 검토한 즉, 성경의 파괴적 고등비평의 옹호자와 자유주의 신학자의 옹호자로서 自現함이 명백하다.

박형룡 박사의 이상의 비판서는 1948년 4월 서울 새문안 교회에서 소집되었던 제 34회 장로회 총회를 기해 작성된 것으로, 이것을 인해 한국장로교회는 김재준 교수의 성경 유오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동년 6월 장로회 신학교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옛날 초대 선교사들에 의하여 전해지고, 박형룡 박사에 의하여 가꾸어지고 꽃피워진,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추호의 타협도 없는, 강경한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IV. 韓國 長老教會의 課題 : 改革主義의 再確認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초기 한국 장로교회는 일반적으로 강한 칼빈주의적인 교회였지만, 한편 역사적 장로교 사상과 불일치, 혹은 성경진리에 미흡한 요소들, 즉 世代主義, 根本主義, 敬虔主義, 神祕主義 등이 알고 모르는 사이에 처음부터 교회안에 작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는 더욱 深化되어 개혁주의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는 개혁주의가 근본주의, 세대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와 동일시 될 정도로, 오늘의 한국 장로교회는 사상적 혼란 속에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오늘의 과제는, 우리 교회 안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이상의 모든 不一致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본래의 개혁주의 그 자체를 찾아내는 일이다.

合同神學校가 1980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存在하여 오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 개혁주의 사상의 재확인 운동에 있는 것이다. 합동신학교의 설립 이념인 三大理念 중의 그 첫째 이념인 "바른 신학"이 그것을 가르키고 있다.

과연 개혁주의적인 한국 장로교회는 이상과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감염되었는가? 감염되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감염되었는가?

먼저, 한국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아왔다. 세대주의가 곧 역사적 장로교인 것처럼 혼동하고, 세대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를 구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서구로부터 선교사들을 통하여 온건한 형태의 세대주의가 유입되었다."³⁵⁾고 간하배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문서의 번역이나 출판물을 통하여 초기 한국교회의 세대주의가 힘을 얻었지만, 서구 형태 그대로의 세대주의가 아니라, 약간 변형되거나 수

정된 것이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세대주의는 미국의 강한 律法廢棄論과 같은 그런 세대주의는 아니었다.³⁶⁾ 그러나 하나님의 啓示의 歷史를 일곱 世代로 나누는 세대주의의 가르침이 한국교회의 가르침속에도 나타나고 있었다고 간하배 교수는 한부선 선교사의 글(Bruce F. Hunt, "Beachhead in Korea", The Presbyterian Guardian, Vol. 29, No. 2, p. 23)을 인용 주장하였다.³⁷⁾

세대주의자들이 구분하는 7세대는 다음과 같다.

1. 무죄시대 (인류 타락까지의 에덴 동산시대)
2. 양심시대 (타락-홍수)
3. 인류 통치시대 (홍수-아브라함 부르실 때)
4. 약속시대 (아브라함-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5. 율법시대 (시내산 율법-그리스도)
6. 은혜시대 (그리스도의 공중성역 완성-재림)
7. 왕국시대 (천년왕국)

이상의 각 시대는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율법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啓示가 없다고 세대주의자들은 주장한다.

구약의 율법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행하는 공로로 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신약 은혜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매는 律法의 啓示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생활과 신앙의 법칙으로 순종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교회가 세대주의 신학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단순한 성경 해석법이다.³⁸⁾ 모든 豫言의 약속에 대한 엄격한 文字的 解釋과 문자적 성취라는 세대주

35) Conn, *op. cit.*, p. 32.

36) cf. F.H. Hamilton, *The Basis of Millennial Faith*, 1952. p. 29.

37) Conn, *op. cit.*, p. 33.

38) Conn, *op. cit.*, p. 34.

의적 원리가 초기 유아기적 한국교회에 알맞았던 것 같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미래에 대한 강조”가 한국교회에 널리 퍼졌다.³⁹⁾ 오늘의 한국교회가 천국의 現在性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세대주의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강조한 나머지 성경 자체가 때로는 다른 부분의 성경을 문자적이 아닌 靈的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행 15:15-20). 또한 그들은 신약에서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요(롬 9:6; 갈 6:16), “유대인”이요(롬 2:28, 20), “아브라함의 씨”요(갈 3:29), “시온”(벧전 2:6; 히 12:22)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律法과 恩惠를 예리하게 구별하여, 은혜의 영원성과 율법의 항구성을 파괴하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마 12:28; 눅 17:21)을 무시하고, 교회가 비밀히 휴거된다고 함으로 성경에 위배되는 교훈(살전 4:16, 17)을 강조한다. 그들은 聖經의 單一性, 教會의 단일성, 은혜로 말미암는 救援의 단일성에 막대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 장로교회에 영향을 준 요소는 근본주의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故 朴亨龍 박사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신학지남에서 “근본주의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정통주의요, 정통파 기독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적, 정통적 신앙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즉 정통 신앙과 동일한 것이니만치 이것은 곧 기독교 자체라고 단언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정의일 것이다. 근본주의는 기독교 자체이다⁴⁰⁾”라고 하여, 자신의 입장이 근본주의임을 밝혔다. 아마 그의 논문

39) 길선주 목사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쳤다. “그는 末世論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음을 지적했는데, 그 자신은 前千年期說을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世代主義的 前千年期說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무천년기설과 후천년기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김광수, 現代宗教, 1986. 11월호, p. 49; 정성구, 韓國 教會 說教史, 1986, p. 151-152); 金九燦 목사, 末世論 研究(慧星文化社, 1964), pp. 31-55.

40) 신학지남, 제 25권 1호, 1960. 9. pp. 12-24.

은 한국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박형룡 박사의 이 주장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왜냐하면 장로교 신학의 전통적 입장인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는 근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본주의가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신성, 처녀탄생, 대속교리, 부활, 재림 등 근본교리들을 변호한 것은 개혁주의와 일치하나, 성경을 균형있게 보지 못하고, 깊이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약점이다.⁴¹⁾ 예를 들면, 豫定敎理는 칼빈이 말한대로 “교회의 심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만족하게 보여 주지 못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깊이 보지 못한다. 구약 시대의 신자들 중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 시대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많이 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다같이 은혜 계약에 속하는 구원방법의 계시로, 구약은 은혜의 약속에 대한 계약이고, 신약은 그 성취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과 통일성을 갖는 것이다.

근본주의의 약점 중의 또 하나는 一般恩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세상 학문에 대한 신자들의 노력을 강조하지 못하고 반지식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때가 많다. 아마 이 점이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영향받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딤후 4:4-5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 짐이니라.”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연을 바로 다룰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에 대하여 불신자들보다 더욱 힘있게, 올바르게 장려할 수 있는 것이다.

41) 박윤선, 근본주의의 약점(로고스, 1964), pp. 5-11.

개혁주의는 교육을 강조하고 科學을 장려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셋째로 한국 장로교회의 밑바닥 깊이 흐르고 있는 것은 神秘主義이다.

간하배 교수는 “신비주의는 교회의 교육적 사역이 약했던 결과로 생긴 초기 이래로 계속된 경향이다.”⁴²⁾라고 지적하였다.

신비주의의 특징은, 성령을 말씀에서 독립시켜 말씀보다는 성령을 내세우고 성령을 중시한다. 그러다보니 신비주의는 말씀의 객관적인 표준을 잃고 主觀主義, 情緒主義에 빠진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지식을 직접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다. 신비주의자들은 또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은 단순히 영적인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또한 잘 된다고 믿는다. 말하자면 만사형통의 축복이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소원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에는 순복음 교회식의 3박자 축복사상(요한 3서 2절에 근거)이 팽배해 있다. 3위 1체 하나님이 없는 성령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신비주의가 생존적 가치와 연결되어 현세 이익을 추구하게 될 때, 이것은 결국 무교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복신앙에 빠지게 된다. 결국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진리에서 탈선한다. 교회의 無用論을 주장하고, 그 부패를 공격하며, 교만에 사로잡힌다. 2세기의 몬타누스(Montanus)는 당시 교회의 도덕적 부패에 대한 반동으로 새로운 운동을 이끄셨는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요, 말씀이요, 보혜사”라고 하였다.

넷째는 敬虔主義이다.

경건주의는 體驗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경건주의는 쉽게 주관주의 또는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을 갖고 있다. 때로는 內省를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주관적 체험과 경건한 감정을 강조한 슐라이어마허(F. E. Schleiermacher, 1768-1834)와 그 추종자들을 통하여 주관주의 신학과 인본주의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슐라이어마허는 종교의 본질을 감정으로 보고, 경건한 감정의 상태를 신학의 내용으로 다루고자 했다. 그리하여 신학은 객관적인 진리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경건한 개인의 감정을 기술하려는 주관주의에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경건주의는 感情을 강조하다보니 知性의 역할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靈力과 知識을 균형있게 유지하지 못하고, 과학과 철학 등 학문을 항상 혐오의 눈으로 본다. 따라서 경건주의는 정치, 사회, 혹은 노동 분야에 대한 기독교의 막중한 의무를 보지 못하고 이를 등한시한다. 경건주의는 기독교는 다만 罪人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리스도를 믿게하는 범위안에서만 사회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교육이나 과학, 혹은 경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경건주의는 성경 읽기와 기도와 교회 출석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와 구원의 체험을 강조하나, 남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배타적이고, 반제도적이고, 반전통주의의 경향을 가진다.

聖經은 여러 곳에서 신자의 경건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경건주의가 아닌 “경건”은 필수적인 것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경건은 중요하나 경건주의는 폐단을 가져온다. 그것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좋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경에 없는 생활표준을 새움으로 律法主義에 떨어질 위험을 만나게 된다. 경건주의로 흐르게

42) Conn, *op. cit.*, pp.37-38.

되면, 성경적으로 밝히 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사람의 생각 대로 규칙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그런 규칙은 성경처럼 보편적인 표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는 논쟁을 일으키게 되고, 德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 신자의 생활을 聖化시키는 비결은 성령의 역사이지 사람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규칙에 달린 것이 아니다.⁴³⁾

43) 박윤선, *op. cit.*, p. 11.

교회 개혁의 수단—“하나님이 예비하신 강력한 쇄사슬”(I)

오 덕 교

<부교수·역사신학>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 생활은 순수한 초대교회의 신앙과 생활로 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영국 국교도들은 로마천주교도들 처럼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으며, 성호(聖號)를 그으며, 성경에 명령된 적이 없는 인위적인 예배를 드리며, 사악한 자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인지 악당들의 소굴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난하면서 교회의 표지(標識)를 회복하므로 영국 교회를 개혁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개혁사상은 영국 교회의 개혁을 돕기 위하여 영국에 온 대륙의 개혁자 마틴 부처(Martin Bucer)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는 1550년 에드워드 6세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하여」(De Regno Christi)를 헌정하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회복하므로 교회를 개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곧 영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권징을 바르게 실시하며, 성례를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준대로 바로 시행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

1) Martin Bucer, *De Regno Christi*. In *Melanchthon and Bucer*.